

경제 전망 1971년도



오 세 정
 <전대 측대 교수>

근년의 부로일터사업은 국민의 소득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으로 식생활의 개선 및 향상으로 육류(肉類)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서 소고기의 생산 공급에 부족을 일으켜 4년전에 육류 파동이 있는 후부터 부로일터 산업은 가속도로 수적으로나 경영규모면에서 또는 기술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70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소비에 따른 생산의 과잉으로 큰 불경기가 와서 부로일터 산업은 유래없이 긴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1) 69년도에 지나친 부로일터산업의 호경기를 (수지가 맞았다) 맞이하였다는 점.

(2) 그리하여 너도 나도 갑자기 수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3) 부로일터 생산규모가 전업 또는 기업의 형태로 급격히 발전되었다는 점.

(4) 정부의 긴급 재정 정책으로 불실기업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소비추세가 늘지 못하였다는 점.

(5) 생산의 과잉과 아울러 소비유통면에서 중간 마진이 너무나 크고, 또 중간상인의 횡포, 농락이 심하였다는 점.

(6) 유통질서가 확립 개선되지 못하고 비위생

(非衛生)적인 처리가 구태의연하였으며,

(7) 메스컴의 오보(誤報)

(8) 현실을 무시한 관(官)의 지나친 단속

(9) 소비증대를 위한 방안의 개발이 없었다.

(10) 정부정책의 방임과 사회 질서의 불안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이룬데다가 생산체제와 수급의 일원화가 되지 못한 여러가지 제약된 현실 여건하에서는 항상 불안한 사업이 아니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것이 발전의 과도기적인 시련이고 경험의 지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1. 아직 불안한 사업이다.

지난날을 회고해 볼때 부로일터 산업은 너무나 급속도의 성장이고 또 사회생활 여건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질서가 불안하며 유통개선이 체계있게 이루어지지 않는한 1년에 몇번씩 가격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로인하여 영세한 업자는 경영상 무엇보다도 먼저 큰 손실과 타격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로일터 사업을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남이 수지를 맞춘다고 뒤따라 가다가는 손해를 보는 사업이니 지나친 호기심과 투기적인 정신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2. 71년 여름부터 불경기가 또 온다.

지난 70년초부터 8월까지에 불경기로 생산에 위축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예년같으면 가을 김장철 비수요기에는 항상 값이 떨어지고 불경기를 가져오는것이 상례인데 반대로 9월이후 계속 옥제값의 상승으로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또다시 부화장에서 병아리가 팔리고있으며 현금을 갖고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즉 지난 불경기때 중단하였던 사람들이 또다시 사육을 서두르고 있으며 손해본것을 만회하고자 이미 시설된것을 다시 손질하여 육성에 핏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의 희망은 71년 상반기에 있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 추세가 증가 될것을 예견 일확 천금하려는 투기심이 가속적인 촉진제가 되고있는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수요의 증대를 가져 올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게 기대할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부로일터 1kg당 200원 정도는 6월까지 유지 되지 않을까 예견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후 부터는 즉각 공황기를 맞이하게 되리라 보이며, 전반적으로 불매 좋은 경기의 해라고는 볼수 없다.

3. 영계육성은 하지않는것이 좋으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영계라 하면 산란계 옹추를 육성하여 체중 400~500g정도에서 상품화 시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금년도 산란계 부화수수의 증대와 식성(食性)의 개선으로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과잉될것이 틀림없으리라 예견한다.

외국에서는 산란계 옹추를 수지가 맞지 않아 키우지 않게된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백숙용으로 소비는 되고 있으나 그 양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채란계 옹추는 500g이상을 증체시키자고 하면 사료요구율이 급격히 떨어져 수지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계육성사업은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될 가망성이 있으니 전업 또는 기업적으로 하지 않는것이 좋으리라 본다.

외국 도입계 난용중에서 생산되는 옹추의 수만도 1,500만수가 넘을 것이며 국내계 및 잡탕계에서 생산되는 옹추의 수까지 합치면 5,000만수가 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고 보면 영계는 틀림없이 생산의 과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값이 싸다고 또는 공짜라고 무모하게 키우다가는 사료비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4. 사료비의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부로일터생산에 있어서 사료비는 생산비의 70%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원료의 90% 정도가 도입되는 사료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입가격이 계속 상승일로에 있는 것이다.

즉 과거 5년전에는 옥수수만 5천톤정도 밖에 도입되지 않던 량이 이제 거의 30만톤으로 증가되었고 가격면에서도 65불이 80불선으로 올랐고, 더구나 70년도 미국의 옥수수의 작황이 평년작의 20%감수와 판매량의 증대로 가격은 상승되어 71년도에는 90불이 넘어설거라는 예측이 되고있다.

그리고 어분도 페루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그 양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가격도 120불정도에서 200불로, 때로는 250불이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도입사료의 가격이 상승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70년도에 비하여 71도에는 현수준의 배합비로서는 사료값이 20% 내외가 상승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로일터 생산비의 사료비가 가중되게 되는 것이다.

즉 배합사료 1kg당 1원이 오르면 사료요구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최저 3~5원의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게하는 것이다. 즉 사료값이 5원이 올랐다고 하면 부로일터 1kg당 15~25원의 금액이 가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와같이 사료값이 상승을 가져왔다고 하

* 부로일러 전망

면 소득은 감소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양계업자의 자각과, 사료 공장에서는 자원의 개발과 과학적이고 효율이 높은 값싼 사료생산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되며,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는 바이다.

즉 정부에서는 도입사료의 종류의 다각화를 기할 것이며, 영양가치면으로 본 값싼 사료를 구입하고 또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연구 개발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시책과 자금의 뒷받침이 이루어질것을 간절히 바란다.

더우기 현재로서는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량을 적기에 공급되고 있지만, 만일에 국내실정과 외국의 형편에 따라서 수급의 차질을 가져왔다고 하며는 큰 파동을 가져올 것이며 양계업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선거가 끝난후 전반적인 불경기를 예상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정부에서는 관기와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이되었던 민심을 가다듬도록 할것이며,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많은 액수의 자금이 방출된것을 회수 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정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며, 밀린 세금의 회수를 강력히 집행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선거가 끝난 후에 자금의 고갈과 사회의 불안은 즉각 소비성의 감축을 가져오게 되며 특히 부로일러의 소비량감소가 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소비량은 감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부로일러는 생산비 이하로 유통되지 않을수 없게되니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부로일러 업자와 부화업자는 자숙이 요청되며, 규모의 확대보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내용의 충실과 알차고 규모있는 경영이 되어

야 할것이다.

6. 유통체계와 처리방법의 개선책으로 일시 파동이 예상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통방식과 도제방법의 개선책이 촉구되고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정도로, 만일 무리한 집행은 일시적이거나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소비추세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즉 생계 유통에서 도제 유통으로 전환시키며, 도시내에서 환경 미화와 보건 위생상 생계판매와 도살을 금지 할 경우 혼란을 가져 오게된다. 그러나 미리 예비기간과 대책이 선행된 후에 서서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법적인 개정은 새로운 국회(8대국회)가 개최된 다음으로 되겠지만 그간이라도 현행법상으로 지나친 단속을 강행하면 일시적인 수급과 유통상에 파동이 예상된다.

물론 국민보건 위생적인 견지에서나 도시의 위생 나가서는 체중의 감소를 막는 견지에서도 개선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오랜 인습과 여건하에서는 과도적인 과정이 있어야되고 또 미리 대책이 선행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혼란이 적어지는 것이다.

여하간에 금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될것이고 이로인한 파동은 있으리라 생각하여 생산자 유통과정을 담당할자는 범 국가적인 견지에서나 국민보건 위생상으로 보아서 협조와 자각 그리고 개선에 노력을 하여야한다.

7. 종계 도입의 증가와 세미종 생산의 파열이 예상된다.

부로일러 전용종과 겸용종의 도입수가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산란계 판매가 부진될 경우 전용종의 숫놈과 교잡하여 세미종의 생산이 과다하게 생산될 염려가 많으며, 이로인하여 부화장은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며, 생산사육수의 증가로 생산 과잉이될 염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과 여건때문에 영계용은 3~4월부터 공황이 닥칠 염려가 있으며,

썩미종은 6~7월부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전용종도 병행하여 7~8월에는 공황이 닥칠 염려가 있으니 무리한 사업의 확충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금년도의 대책을 열거하면

(1) 외상판매를 하지 말것

양계업자는 병아리 또는 사료를 의상으로 구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계란 또는 부로일러의 외상 판매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상거래의 풍조가 많은데 이러한것은 좋은것 같지만 오히려 불리하고 불안한 일이다.

의상은 서로 불신(不信)과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며 공멸(共滅)과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2) 지역별로 또는 조직계통별로 부로일러 생산 조합을 하루속히 구성하여 구입과 판매를 체계화하고 수급을 조절하며 합리화를 기할것.

(3) 규모를 확대보다 내용을 충실히 알찬 경영을 할것이며, 적정규모의 사육과 경영을 할것.

(4) 규모의 확대할 돈이 있으면 직접 판매하는 소비시장의 확대 즉 소비센터를 만들어 중간상인의 개재를 없애게 할것이며 이로인한 중간 마진을 줄일것.

(5)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 하여야 한다. 생계는 운반중에 1시간에 0.5~1%의 감량이 생긴다. 즉 하루밤을 재우면 체중이 10~15%의 감량이 생기니 이점을 특히 고려할것.

(6) 수집소상인에 의한 거래를 하루속히 중지할것, 즉 자전차로 수집하는 사람에 의하여 의존 판매할 경우 가격의 농락 뿐만이 아니라 수급의 원활을 못하게되어 적기에 출하를 못하여 피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방역(防疫)상 절대로 안된다.

그들은 병의 종합센터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들과의 거래는 전염병의 전파와 오염의 염려가 많다. 그러니 여하간 자전차꾼에 의한 거래는 하루속히 중지되는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7) 정부에서는 육계안정기금을 적기에 방출할 태세를 갖추것.

(8) 닭고기를 사먹기 용이하게 판매소를 증설할것. 즉 육교간, 생선전, 식료품가게 등에서 취급케할 뿐만 아니라 닭고기 전문 시장을 개설 운영토록 할것.

(9) 정부에서는 닭고기 먹는 날을 제정할것. 즉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며 닭고기 먹는 날로 정하여 소비증대를 할것.

(10) 정부에서는 유통의 개선과 소비의 증대를 위하여 자금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과감히 지원토록 할 것이며 신문, 라디오, TV잡지등을 통하여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비 증대를 위한 제언을 많이 취급토록할것.

(11) 닭고기와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마리당 또는 개당으로 거래치 말고 중량과 등급제로 하여 판매토록 법제화할것.

(12) 사료값을 올리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할것이며, 또한 수급의 차질이 오지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비축제를 강화할것.

이와같이 성장과정에 있는 부로일러 산업의 건설할 발전, 나가서는 농가의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이번 선거에는 양계업자 나가서는 축산업자들이 대동 단결하여 축산인 또 축산업계에 관련이있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밀고 당선 시킴으로서 우리의 권익을 옹호할수있으며, 또한 애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영세하고 후진국일수록 정치의 영향이 크것이니 당을 초월하고 오직 축산계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고 당선되도록 적극 미는것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선결문제라고 생각된다.

양계업자 또는 축산계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시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며 발전시킬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축산인의 입장에서 호소하며 재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하여 무리한 사업의 확충보다 생산물의 소비증대와 유통의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것만이 공황을 적게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길이 될것이다. □□